

2022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10.25. 15시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7/10	3	-	10	○		

o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권혁남 위원장, 박찬재 부위원장, 정의식 위원,
정경모 위원, 이현숙 위원, 유환익 위원,
김희중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추승호 보도본부장, 문승재 시청자센터장, 한승호 심의실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2	-	-	-	12	-	12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2	-	-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p>보도</p>	<p>연합뉴스TV 스페셜, 반려견, 반려묘 등 천만시대(1500만이라고도 함)에 맞춰 반려견들에 대한 실상, 유기견에 대한 실태 등 비교적 자세한 보도가 있어서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생명 존중 정신을 통해 사람과 동물들이 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식위원)</p>	<p>9월25일 반려견 놀이터 '혐오시설' 논란... "공존 방법 찾아야" 관련 리포트를 제작하여 사람과 공존하고 생명 존중 정신을 통해 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도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2.9월 조치></p>	<p>'22.9월</p>
<p>보도</p>	<p>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서 규제 완화 '꿈들" 2022-08-29, 서울시가 각급 학교들의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고 필요하다면 견인 조치도 강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야간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취지와 다르게 민원인들의 여론으로 법 개정 1년만에 규제의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착잡합니다.(천경숙위원)</p>	<p>10월4일 학교 안팎 전기차 충전소... 어린이보호 '사각' 우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리포트를 제작하고 방송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고 추가로 사각지대까지 어린이 보호의 안전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22.10월 조치></p>	<p>'22.9월</p>
<p>총 건수</p>		<p>2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선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연합뉴스TV는 보도채널로서 속보성을 유지하되 심층보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신문과 방송, 통신 등 기성언론(legacy media)이 뉴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자와 시청자들이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시대가 되었다. 속보성 측면에서 이미 기성언론은 소셜미디어를 따라갈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9월 우크라이나에서 개최된 제 64회 세계신문협회 총회(World Newspaper Congress)에서 '뉴스란 15초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어떤 것'으로 새롭게 정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현재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달해주는 것은 하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는다. 트위터 등이 뉴스를 먼저 알리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기성언론의 몫으로 남는다. 연합뉴스TV는 사건의 원인과 배경, 의미, 전망 등을 분석하여 전달해 주는 뉴스의 문맥(context)을 강조하는 심층보도에도 더 주목해야 한다. 뉴스가 문제를 제기하고, 묻지만 말고 해결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 journalism)을 추구해야 한다. 뉴스가 단순히 사건의 보도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문제 해결방안도 동시에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치열하게 경쟁하는 다른 미디어들과 차별화시키는 전략이 될 것이다. (권혁남위원장)</p>	<p>말씀대로 현상만 보도하는 것보다 대안까지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취재를 훨씬 많이 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 적절한 시점에 특정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팀에서 큰 이슈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대안까지 제시하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p>	○		
보도	<p>10월 17일부터 한 주간 심층보도 [현장르포 -마약-] 코너를 기획하여 시리즈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p>	<p>사회부의 젊은 기자들이 기민하게 마약 기획 리포트 만든다고 품도 많이 들고 고생 많았다고 생각합니다.</p>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한주 동안 마약문제 확산의 심각성을 공론화 노력을 하고 있는 연합뉴스TV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언론이 바른 사회로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당시 사회현안 문제를 분야별, 영역별 등으로 나누어 시리즈로 심층적으로 확대 기획 보도하는 것은 어떠한지 제안합니다. (박찬재 부위원장)	앞으로도 사회 현안과 관련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시리즈로 밀착 취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도	우주에서 본 지구 야간 위성사진 중, 북한의 불빛 중 평양 불빛 외에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불빛이 보이는데, 다른 뉴스 채널에서는 평양 불빛 외에는 다른 곳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지금 북한 전기 사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뉴스TV 야간 위성사진은 언제 찍은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뉴스를 켜다': '세상을 켜다'란 타이틀 롤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의지로 북한 땅에도 밝게 불빛을 입혔는지 모르지만, 실상도 그런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정의석위원)	북한 쪽이 좀 밝게 보인다는 그 영상은 이른바 '채널 아이디'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저희가 뉴스하고 뉴스 사이에 그 시간대 방송을 하는 영상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어서 북한 쪽을 그렇게 밝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픽부는 세계 곳곳에 뻗어가는 취재망과 세계의 뉴스를 상징하기 위해 그렇게 작업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무튼 오해 소지를 나눌 수 있다면, 앞으로 채널 아이디 제작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10/3 노란봉투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업하는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하청기업 등)입장과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상세한 설명과 분석이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들과의 합의점(협업)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대한 자세한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랬듯이, 일반적인 상생이라는 강요가 아니라 치열한	노란봉투법 말씀을 하시면서 일방적인 상생 강요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워낙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기대어 보도를 하는 것은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양쪽 입장을 두루 보여주면서 시청자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균형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토론을 거친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정의식 위원)	있게 보도하겠습니다.			
보도	[특집다큐] 한글, K-콘텐츠 타고 세계로, 한글날 특집에 맞는 흥미로운 기획이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K팝 등 한국 콘텐츠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현상을 1,2부에 나눠 K-콘텐츠,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 한국식 영재 교육을 통해 클래식 음악, K-POP 등의 실력있는 뮤지션이 성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이라는 정글 같은 생태계에서 살아남은 아이들과,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강한 통제를 견뎌야 하는 아이돌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어린 나이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을 고민하는 불안감 등의 보이지 않는 그늘도 있어, 대학 수업 수준의 교육, 영재 교육 등으로만 간단하게 묘사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현숙위원)	말씀하신 한글 케이 콘텐츠 세계로 제작물은 저희가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아서 한 6개월 동안 제작을 한 건데요. K-콘텐츠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K-콘텐츠의 강점 위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를 낳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앞으로 제작 과정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보도	10월10일 저녁8시뉴스 [현장의재구성] 3년 만에 '제대로' 열렸다...부산국제영화제 하이라이트, 부산 영화제의 하이라이트를 모아 재미있게 구성한 영상으로 기획의도는 좋았으나 도입부에 현장 분위기를 보여주며 자막으로 '소리뽕고 팬티질러'라는 글이 보	현장의 재구성 제작팀에서는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좀 소프트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젊은 감성을 선보인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유행어를 집어 넣은 것 같은데요. 예능도 아니고 보도채널에서 이런 자막을 내보내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유행어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여 놀랐습니다. 후반부에 배우 양조위가 말할 때도 자막으로 '존버+1'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굳이 자막을 그렇게 달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행사를 소프트하게 다룬 코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도전문채널에서 맞지 않게 선을 넘었다는 느낌입니다. (이현숙위원)	를 쓰더라도 보도 채널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한전적자 국민전가 과정 상술 아쉬움, 지난 10월15일 방송되었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고양이 목에 전기료 인상 청구사 달기 가능할까?"는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전 적자가 왜 국민에게 전가되는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나아가서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미흡했음, 이를 위한 합리적 대책들을 제시하고 한편에서는 원전 부분도 언급했으면 시청자들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을 것으로 보임 (유환익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번 뉴스프리즘 내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다만, 뉴스프리즘이 저희 나름은 심층이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심층 기획입니다. 리포트 3개를 묶는 형식이고 분량도 총 10분이 안되다보니 그 안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미처 못 담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시오. 좀더 많은 분량을 통해서 심층 보도할 수 있는 스페셜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특히 문화예술 부문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일반 시민들이 실제 문화예술을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부문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시설도 미비한 부분이 많고 제도와 의식면에서도 아직은 문화선진국에 비해 취약합니다. 문화예술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동적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체험해보는 적극적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국회 등 정치	다양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고 문제제기를 통해 일반인, 나아가 사회적 약자까지도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사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권은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미디어는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문화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기획취재, 그에 따른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경모위원)</p>				
<p>보도</p>	<p>10.18일자 <마약3>편의 자막에서 '문턱 낮아진 마약' 표기는 적절해 보이지 않음. 문턱이 낮아졌다는 표현은 통상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워 보이기 때문임. 차라리 '구매 환경 쉽게 노출' 등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생각하며,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한 뉴스인 만큼 자막 다는 일에도 신경 써 주면 좋겠음. 아울러 10.18일 <마약4-르포>에서는 기자가 우리 일상에서 마약을 얼마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시연했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장면이 다소 디테일하게 소개돼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모방 범죄 심리를 불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마약 구매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리포팅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음. 또한 '마약김밥'부터 해서 '마약옥수수' '마약가수' 돈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마약 스테이크 보면 만약에 부정적인 사회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어느 정도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들이 아울러 마약 뉴스를 집중 편성해 내보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법과 제도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뉴스도 함께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김희중위원)</p>	<p>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가지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문턱 낮아진' 이런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라서 자막으로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구매하는 절차를 묘사하는 것도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보기에 따라선 자세하게 보도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추후 취재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마약 김밥'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방송에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쉽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표현이라서 무심코 썼는데 요즘처럼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도 자칫하면 위해성에 대한 경계심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국정감사 증인채택 등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기회를 동일하게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10.16 뉴스1번지, 여2/야1)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보충(추가)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TV 화면에 제목을 송출할 때 과장되는 내용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판단을 고정관념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0월 17일 [뉴스초점] 시간에 '카카오에 올스톱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송출되었는데 앵커나 토론자는 그런 내용의 표현을 한 적이 없었고('카카오 먹통 사태'라고 표현) 진행도 유연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스톱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시청자들이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거나 심지어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문해주위원)</p>	<p>국정 감사 중 공방이 이뤄지거나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여야의 발언 기회나 관련 화면 노출 빈도 등에 있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스톱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지나친 측면이 있었는데, 사전에 거르지를 못했습니다. 뉴스 제작을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p>	○		
보도	<p>[현장의재구성] '국민 메신저' 먹통에 나라가 들썩...카톡이 뭐라고, 18일 보도된 <[현장의재구성] '국민 메신저' 먹통에 나라가 들썩...카톡이 뭐라고> 기사는 이번 카카오톡 화재 장애 사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3분44초 영상에 담아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카카오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카카오가 먹통이 된 뒤 난처해하는 실제 시민들의 모습, 가령 키보드 반환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지불해야 할 요금이 50만원을 넘었다는 게시글, 식</p>	<p>카카오 사태는 19일 복구 발표와 대 표 사퇴, 대국민 사과 등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됩니다. 발화 원인, 책임 소재 규명, 무료 이용자 포함 보상 문제 등이 이제 시작입니다. 과거 KT 아현국사 화재의 경우 이른바 '보상'이 실제 지급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플랫폼 독과점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분야에서 진행 상황에 맞춰 후속 보도를 전개할 예정입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당을 예약하는데 불편을 겪은 시민 인터뷰, 이번 화재 사태에 대한 카카오 측(양현서 부사장)의 입장 발표 등 장면을 집약적으로 짚은 영상에 담아낸 편집이 돋보이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카카오톡 장애 사태 집단소송과 관련된 첫 단독보도를 한 만큼 이후 카카오 측의 보상 내용이나 소송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다양한 후속보도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김세한위원)				
보도	학교 안팎 전기차 충전소...어린이보호 '사각' 우려-10-04 최근 전기차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충전시설도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 앞에 초등학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한 대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충전소가 있는 이곳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곳 주차장에 더 많은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예 학교 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곳도 있는데, 학교 내부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느낀 학교 측은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 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걱정스러운 뉴스가 전파를 탔습니다. 그래픽 뉴스 처리도 잘되어있고 국회의원의 인터뷰 내용도 적절하여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해	어린이 등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부는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후속 보도에 충실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하기 쉬웠습니다. 전기차의 충전소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안팎으로 차량이 드나들게 되면 교통안전, 학생 안전, 학교 보안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으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이 교내 전기차 충전 및 주차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와 동시에 녹색어머니로서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공용주차장이나 교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절실합니다.(천경숙위원)				